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6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도 키운 ‘트리티케일’, 한우 사료 적합도 검증-8면(2026. 10. 26.)	원예작물과	한국영농신문
○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보급확대 협약-11면(2026. 10. 28.)	원예작물과	농민신문
○	태풍 ‘참피’로 제주 농경지 침수 피해-5면(2026. 10. 28.)	기술지원조정과	농민신문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녹두 농작물 재해보험 물꼬 트이나-3면	-	제민일보

(한국영농신문: 2026년 10월 26일)

○ 제주도 키운 ‘트리티케일’, 한우 사료 적합도 검증-8면

제주도 키운 ‘트리티케일’, 한우 사료 적합도 검증

제주농업기술원 · 서귀포시 축협
3년간 매년 10ha 규모 현장 실증

제주에서 재배한 트리티케일을 한우에게 먹여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핀다. 농업기술원과 서귀포시 축협은 농가 보급을 위한 현장 실증을 함께 추진한다.

제주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용관)은 15일 농업기술원에서 트리티케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배해 만든 겨울철 사료작물이다. 이번에 실증하는 ‘한영’ 품종은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고, 땅에 물기가 많아도 비교적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한영’ 품종을 선발하고 1ha에서 종자 생산을 실증했다. 올해는 종자용 0.4ha와 사료용 7ha 등 총 7.4ha에서 실증을 진행했다.

현장평가에서 축산농가들은 트리티케일의 생육과 생산량, 사료로서의 가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리티케일 공급을 늘리고 실증을 이어가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3년간 연간 10ha 규모로 트리티케일 생산과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시험에 필요한 종자를 지원하고 재배 방법을 지도한다. 서귀포시축협은 재배지를 선정 · 관리하고, 생산한 사료를 한우에게 먹여 체중과 육질 등을 평가한다.

두 기관은 매년 한 차례 현장평가회를 열어 재배와 한우 사료 활용 결과를 농가와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관 서귀포시 축협 조합장은 “제주에 적합한 사료작물로 자리 잡으려면 축산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한우에게 먹였을 때의 결과를 꼼꼼히 살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균 제주농업기술원장은 “맥주보리 재배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작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축산농가에는 안정적인 사료 생산과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연구와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0. 26.
제주 한국영농신문 8

(농민신문: 2026년 10월 28일)

○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보급확대 협약-11면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보급확대 협약

서귀포시축협·제주도농기원
매년 10ha 규모로 3년간 재배

제주 서귀포시축산농협(조합장 김용관)과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이 15일 겨울 사료작물인 ‘트리티케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배해 만든 사료작물이다. 추위와 쓰러짐(도복)에 강하고, 토양에 수분이 많아도 비교적 잘 자라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농기원은 지난해 트리티케일 품종 ‘한영’을 제주지역 겨울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선발하고, 총 7.4ha(종자용 0.4ha, 사료용 7ha)에서 실증 재배를 추진했다. 서귀포시축협 조합원 3농가도 참여해 표선면 일대에서 1ha 규모로 재배했다. 첫해 현장 평가에서 축산농가들은 트리티케일의 생육 상태와 생산량, 사료 가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ha 규모로 트리티케일을 재배한다. 도농기원은 종자 지원과 재배기술 지도를 맡는다. 서귀포시축협은 재배지를 선정·관리하고, 생산한 사료를 한우에게 먹여 체중과 육질 등을 평가한다. 현장 평가회를 매년 한차례 공동으로 열어 재배 성과와 사료 활용 결과를 농가와 공유할 계획이다.


15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김태균 원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과 김용관 서귀포시축산농협 조합장이 ‘트리티케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용관 조합장은 “트리티케일이 제주에 적합한 사료작물로 자리 잡으려면 축산 현장에서의 실제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우에게 먹였을 때의 결과를 꼼꼼히 살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서귀포=

10. 28.
농민신문 11

(농민신문: 2026년 10월 28일)

○ 태풍 ‘참피’로 제주 농경지 침수 피해-5면

태풍 ‘참피’로 제주 농경지 침수 피해

나흘간 400㎜ 넘게 쏟아져
수확기 작물 병해 발생 우려

제30호 태풍 ‘참피’의 간접영향으로 제주에 나흘간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수확기를 앞둔 콩·메밀과 생육기인 양배추·브로콜리·겨울무 등의 병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지난 주말을 전후로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23일부터 26일 오전 8시까지 한라산 삼각봉에 415.5㎜, 진달래밭에 370.5㎜의 비가 쏟아졌다. 중산간과 해안지역에도 200~35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다.

제주도와 제주도농업기술원이 25일 농업분야 피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등 일부 저지대 농지에서 침수피해를 확인했다.

잦은 비로 농작물 병해 발생 우려도 커졌다. 양배추·브로콜리·겨울무 등은 무름병과 검은무늬병, 수확기를 앞둔 콩나물콩은 자주무늬병(자반병)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가을메밀은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가 예상되며, 감자는 역병, 수확기에 접어든 노지 감귤은 잿빛곰팡이병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조사에 나서겠다”며 “침수 농경지를 중심으로 병해충 방제와 농작물 관리 요령을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브로콜리밭이 제30호 태풍 ‘참피’에 따른 집중호우로 25일 물에 잠겨 있다. 제주도

한편 강한 비바람으로 24~25일 제주시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6 애월읍 농수축박람회’가 전면 취소되는 등 지역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제주국제공항에서도 항공편 결항과 지연 운항이 잇따랐다.

제주=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10. 28. 농민신문 5

(제주매일: 2026년 11월 6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32-3380)

11. 6.
제주매일 8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　간: 2026. 11. 19.(목) ~ 11. 23.(월) / 5일간

○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6.5만 명 내외

○ 행사성격: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제민일보: 2026년 11월 6일)

○ 녹두 농작물 재해보험 물꼬 트이나-3면

녹두 농작물재해보험 물꼬 트이나

농금원, 이달부터 기초조사

내년 사업지역 확대 검토

현행 가입지역 전남 한정

올해 피해보상 별개 과제

가뭄 피해를 호소하며 녹두밭을 갈아엎은 제주 농민들의 요구에 이어 정부가 제주지역 녹두 재배 실태 조사에 나선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달부터 제주지역 녹두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여건과 생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금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제주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에 포함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녹두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지만 시범사업 지역이 전남 무안과 신안으로 제한돼 제주 농민들은 가입할 수 없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안덕면농민회는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녹두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뭄 피해 조사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트랙터로 녹두밭을 갈아엎으며 재해보험 가입지역 확대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올해 가뭄으로 녹두 생육이 부진해 종자비와 비료비, 농약값 등 생산비를 투입하고도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에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확 포기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농금원의 기초조사는 재해보험 사업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발생한 가뭄 피해 보상과는 별개다. 제주지역의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시행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에서 재배되는 비트와 콜라비도 2027년 준보험제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신청돼 현재 검토 중이다. 준보험제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어려운 작물의 피해를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김성범 의원은 "이번 조사가 실제 보험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사업지역 확대를 앞당기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11. 6.
제민일보 3

정○○ 기자